



장부정리...귀찮지만 중요한 일

사례

Z씨는 5년 전에 법인 사업체를 취득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무렵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이익이 나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Z씨는 본인의 사업체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없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상 더는 법인 사업체에 전념할 수 없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Z씨는 미련 없이 본인이 투자했던 정도의 금액을 받고 사업체를 팔았습니다.

회계나 세금 문제에 문외한이었던 Z씨는 그동안 장부정리를 가까운 지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관리 업무에 전념했습니다. Z씨는 지인이 정리한 회계장부와 사업체 매각자료를 회계사에게 전해주고 법인세 신고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Z씨는 회계사로부터 법인을 정리하면서 법인의 세후 이익을 배당으로 처리하고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Z씨는 본인이 법인 설립시 투자한 금액과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액이 비슷했고 그동안 급여나 배당을 받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업체를 팔면서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에 대해 회계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스스로 숫자에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장부정리를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 과정에서 장부 정리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장부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세법지식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료가 신선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부정리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뜨리는 항목 없이 가장 정확하게 장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황에 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셋째,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항목을 파악할 수 있어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은행 입금내용을 수입항목과 수입이 아닌 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입금에 관한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장부정리를 정확히 함으로써 GST/HST 매입세액을 빠뜨리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부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세무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부정리를 위해서는 사업 시작시 사업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사업 은행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계장부는 크게 수입장부와 비용장부로 나누어지고 수입장부는 일별, 월별로 총매출액을 순매출액과 GST, PST 등 관련 세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데 비용 장부보다 상대적으로 정리가 간편합니다. 비용장부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현금 지출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현금 사용을 피하고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면 장부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 법인 장부 정리 내용과 법인세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Z씨는 여러 비용 항목

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용으로 기록되지 않은 금액은 Z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서 세법상 주주 대여금의 회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Z씨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 계산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 왔으며, 사업체 매각시 법인의 세후 이익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총 \$50,000가량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해결책 및 결론

회계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은 Z씨는 법인의 과거 장부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관된 장부와 서류가 Z씨의 기대만큼 충실하지 못해서 누락된 비용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Z씨는 장부를 다시 정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장부 정리는 매우 따분하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숫자를 입력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비생산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귀찮은 일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므로, 남에게 장부정리를 맡기면 정확한 장부 정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장부정리가 정확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내야 하거나 세무감사를 받을 때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정리는 ‘귀찮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